

# 우리나라 양복수용 과정의 복식변천에 대한 연구

—문화전파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이 유 경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김 진 구

## 目 次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전파
  - 2. 문화전파가 복식에 미친 영향
- III. 우리나라 개화기와 일제시대의 복식변천—양복수용을 중심으로
  - 1. 衣制를 통해서 본 복식변천
  - 2. 교복을 통해서 본 복식변천
  - 3. 사회상을 통해서 본 복식변천
- IV. 논의 및 결과
- V. 결 론
- ABSTRACT

## I. 서 론

문화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복식은 문화전파(cultural diffusion)의 영향력 아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가시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전혀 이질적인 두 문화 사이에서 문화가 전파될 경우 복식변화는 더욱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개화기와 일제침략시기의 양복수용과정 역시 이러한 경우라고 하겠다.

문화전파의 결과는 인류 역사상 지대한 영향력

을 행사해 왔다. Kroeber는 ‘전파란 다른 어떤 것들을 수반하든 않든간에, 그것은 항상 수용하는 문화의 변동을 낳는다. 인류 문화에 있어서 전파가 수행한 전체적 역할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만큼 심대하다<sup>1)</sup>’라고 그 영향력을 설명했다. 또한 Kroeber는 ‘집단들은 독립적이나 문화의 산물은 서로 의존성을 갖고, 그에 따라 크게 영향을 주기도하고 다른 문화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이 문화적 산물들의 상호영향은 개인이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훨씬 크다<sup>2)</sup>’라고하여 문화전파의 영

1) Kroeber, A. L. Anthropology,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 1948, pp.478~480

2) Kroeber, A. L. Style and Civiliz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57, p.75

향력을 강조했다.

쇄국정책을 표방하던 우리나라는 근대화하기 시작한 일본의 강압으로 인하여 1876년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뒤이어, 1882년에는 미국, 영국, 독일등 歐美列強과도 차례로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1886년에는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歐美제국의 문물을 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sup>3)</sup> 또한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복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관복 뿐 아니라 일반복식도 간소화되기 시작했고, 의복의 신분상징성도 점차 감소되었으며, 그 결과 양복이 전파되고 수용되는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계속해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07년 정미 7조약의 체결로 군대가 해산되며, 1909년 사법권, 1910년에 경찰권을 빼앗김으로 인해 日帝 침략시기가 시작되었다.<sup>4)</sup>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에 따라, 1945년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게된다.

개화기와 일제침략기를 통한 엄청난 사회적, 사상적, 문화적 변화는 복식에도 파급되어 양복이 정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천년간 착용해 왔던 한복을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양복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복수용은 개화기로부터 시작되어 日帝침략시기에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다고 볼 때,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커다란 복식변화를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복식사상 가장 큰 변화기라고 볼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의 복식변천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었던 1876년부터 日帝침략시기가 끝나는 1945년까지의 복식변천과정과 양복수용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복식변천과정은 衣制, 교복, 사회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를 문화전파이론과 관련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 복식문화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며, 총체적으로 그 과정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전파(Cultural Diffusion)

#### (1) 문화전파의 개념

문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 중 하나인 Tylor의 정의에 의하면,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기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획득된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 총체(complex whole)<sup>5)</sup>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여러 가지 특질을 내포한다. 첫째, 문화는 공유된다. 문화의 이러한 속성은 집단성원들의 보다 원활한 communication을 돕는다.<sup>6), 7)</sup> 둘째, 사회유전적이다. 문화는 사회가 공유하는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개인은 유년기부터 사회화 과정을 통해 문화를 학습하며,<sup>8)</sup> 비유전적 수단에 의해 습득하는 것이다. 이것을 Linton은 생리적 변화(biological mutation)와 대비시켜 사회적 유전(social heredity)<sup>9)</sup>이라고 했다. 세제, 축적되고

3) 한우근,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72, pp.427~430

4) ibid, pp.509~510

5) Singer, Milt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3, NY :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p.527

6) 한상복, 이문용, 김광익,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출판부, 1985, pp.69~70

7) Keesing, Roger, Cultural Anthropology : A Contemporary Perspective(2nd ed.), 전경수역, 현대문화인류학 1, 현음사, 1985, p.94

8) 이광규, 문화인류학개론, 일조각, 1983, pp.37~38

9) Linton, Ralph, The Study of Man, Appleton-Century-Crofts, Inc., 1936, pp.76~79

전달되는 성격을 갖는다.<sup>10), 11)</sup> 한 세대의 경험적인 지식은 상징적인 언어수단에 의해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도 하고, 개인 또는 사회에 의해 다른 개인 또는 다른 사회에 전파되기도 한다. 그러나, Spengler는 이러한 전파나 문화간의 전승을 부정했다. 그것은 우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어날 수 없으며, 문화는 서로에 대해 독립적<sup>12)</sup>이라는 주장을 폈다. 네제, 문화는 초유기체적(superorganic)이다. 문화는 개인에 의해 표현되고 담당되지만 개인을 초월한 초개인적인 존재이다. 즉, 출생, 성장, 사망의 과정을 경과하는 유기체와는 다르며, 초유기체적 원리에 의해 문화는 유지되고 지속되며 안정을 이룬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망과 출생으로 성원들의 교체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문화는 존속하며 독자적인 생명을 갖는 개인을 초월한 초개인적인 존재인 것이다.<sup>13), 14)</sup> 다섯째, 개별 문화는 특수성을 갖는다. 각각의 문화는 고유하게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것이다.<sup>16)</sup> 여섯째,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한다.<sup>17)</sup>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변동을 초래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문화의 제특성 중 하나인 문화전파란 문화적 요소들이나 특성들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확산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Malinowski는 문화전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특성이나 그것의 복합체들보다도 조직화된 체계나 제

도를 전파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sup>17)</sup>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다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문화전파란 하나의 민족집단 또는 지역에서 다른 집단 또는 지역으로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Rogers는 전파과정의 본질에 대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관념을 전달하는 인간간의 상호작용<sup>19)</sup>이라고 정의했다.

문화전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간의 접촉이 선행되며, 접촉의 방법은 직접적 접촉과 간접적 접촉으로 구별될 수 있다. 직접적 접촉이란 무역, 통혼, 의례적 방문 등으로 새 물질, 지식, 풍속이나 제도를 전달하는 것이며, 간접적 접촉이란 선교사, 교육자, 여행가들에 의하여 문화 요소나 문화 복합이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전해지는 것을 말한다.<sup>20)</sup> Moore는 접촉의 주요 모형들을 그 영향력의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1. 제국주의 2. 기타 정복, 전쟁, 군사적 점령 3. 선교사의 선교 4. 대규모 인구이동 5.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이주 6. 경제적인 교역 7. 관광 8. 노동자의 운송 9. 지식의 전파 10. 외교, 간접적 접촉, 공식적 communication 순이다.<sup>21)</sup> 즉, 접촉으로 인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경우는 식민지화를 비롯한 제국주의인 것이다.

문화전파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조적인 문화 특성이나 인관관계, 정서, 가치

10) Kroeber, A. L. op. cit., 1948, p.258

11)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op. cit., pp.71~2

12) Kroeber, A. L. op. cit., 1957, p.86

13) Geertz, C.,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Basic Book Inc., 1973, p.11

14)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op. cit., pp.82~84

15) 이광규, op. cit., p.38

16)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op. cit., pp.74~76

17) Malinowski, B., The Dynamics of Culture Change, Kaberry, M. K. (ed.), Yale University, 1945, p.19

18) Heine-Geldern, Rober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4,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p.169

19)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 Free Press, 1962, p.13

20) 이광규, op. cit., p.83

21) Moore, W. E. Social Change(2nd ed.), Prentice-Hall, 1974, p.90

관같은 비물질문화는 변화하는 속도가 늦고, 종교적 특성이나 의식주, 기계류와 같은 물질문화는 가시적인 것이어서 쉽고 빠르게 전파된다.<sup>22)</sup> 또한, Linton은 문화의 모든 요소는 형태, 의미, 용도, 기능을 가지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이중 가시적인 형태가 가장 먼저 전달되고 의미나 기능은 형태가 일단 이해된 이후에 전달된다<sup>23)</sup>고 하였다.

많은 경우에 실제 문화 특성, 즉 구체적인 내용은 전파되지 않고 그것이 근거한 원칙이나 일반적 개념만이 전파되고 채택되기도 한다. 이 때 받아들여지는 것은 문화복합이나 그 체계의 idea일 뿐이지만, 받아들인 문화에서 새로운 것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idea diffusion' 또는 'stimulus diffusion(자극전파)'이라고 한다. Kroeber는 이것을 '외부문화에 이미 있는 것에 의해 시작되는 새로운 pattern의 성장'<sup>24)</sup>이라고 정의했다. 자극전파의 예로서 18C초 중국磁器의 영향을 받아 유럽에서 磁器가 발명된 것<sup>25)</sup> 영국의 선교학교에서 알파벳을 접한 경험이 있는 Doalu Bukere라는 원주민에 의해 Liberia 해안 Vei에 알파벳을 모방한 문자가 고안된 것을 들 수 있다.<sup>26)</sup>

문화의 전파는 diffusion agent에 크게 의존한다. Diffusion agent가 선교사, 의사, 예술가, 상인, 학자, 정부관리인지에 따라, 또 그 목적에 따라 전파의 과정이나 크기 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전파를 하고자하는 측보다 수용하는 측에서 먼저 받아들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했던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이 습득한 학문 뿐 아니라 관습, 문화 등을 스스로 自國에 전파하는 diffusion agent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27)</sup> Dohrenwend와 Smith는 두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인해 발생가능한 변동의 방향을 4가지라고 지적한다. 그 하나는 소외로서, 이는 한 문화의 성원들이 다른 문화의 방식들을 채택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는 것을 뜻한다. 두번째는 재정향(reorientation)으로서, 이것은 다른 문화의 규범적 구조를 지향하는 변동의 방향을 의미한다. 세째는 재조명(reaffirmation)으로서 이는 전통적 문화를 재발견하려는 전통문화보호운동이다. 네째는, 재구성(reconstitution)으로 유토피아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출현이다.<sup>28)</sup>

아프리카 지역의 연구에서 Malinowski는 두 문화가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면 새로운 것들이 산출되며, 물체나 연장, 화폐같은 수단들조차 문화적 접촉과정에서 변화한다고 하였다. 즉, 서구문화와 아프리카 원주민 문화가 접촉하였을 때 아프리카의 문화가 서구의 문화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조화발전시켜 균형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며, 이러한 현상을 문화변형(transculturation)이라 한다.<sup>29)</sup>

## (2) 문화의 수용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한 외래의 문화나, 혁신자에 의해 창조되거나 발견된 것들이 일단 사회에

22) 이광규, 문화인류학의 세계, 서울대출판부, 1980, p.205

23) Linton, Ralph, op. cit., pp.403~404

24) Kroeber, A. L., The Nature of Cul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2, p.344

25) ibid, pp.344~345

26) Heine-Geldern, Robert, op. cit., p.170

27) ibid, pp. 170~171

28) Dohrenwend, Bruce P. and Smith, Robert J., Toward a Theory of Acculturation,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18, 1968, pp.30~39, in R. H. 라우어(정근식, 김해석역),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한울, 1985

29) Malinowski, Bronislaw, op. cit., p.25

받아들여질 때 이것을 사회적 수용이라고 한다. Rogers는 이 수용과정(adoption process)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인식단계(awareness stage)로 새로운 것을 접하고 이에 노출되지만, 아직 그것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단계이다. 둘째, 관심단계(interest stage)로 혁신에 대해 관심과 호감을 갖게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려고하는 단계이다. 셋째, 평가단계(evaluation stage)로 혁신을 자기의 형편과 관련지어 고려하게 되고 시험여부를 결정한다. 손실보다 이익이 크다고 생각되면 시험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넷째, 시험단계(trial stage)로 혁신을 소규모로 시험해 본다.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다섯째, 수용단계(adoption stage)로 혁신의 본격적 사용이 결정된다. 이상의 다섯 단계중 어느 단계에서도 새로운 것을 거부할 가능성은 있으며, 새로운 것 중에는 급진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있는 반면 점진적으로 수용되거나 수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sup>30)</sup>

수용 여부와 수용 속도를 좌우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이익(advantage)이다. 수용자는 새로운 것에 대해 효율성, 대가, 즐거움 등의 기준에 따라 손익판단을 하고 기존의 것보다 더 유리하면 쉽게 채택한다. 둘째, 적합성(compatibility)이다. 새로운 것이 기존의 가치관이나 수용자들의 과거 경험과 상충되지 않아야 쉽게 채용될 수 있다. 셋째, 복잡성(complexity)이다. 새로운 기계나 개념들은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려울수록 수용이 늦은 반면 단순한 것은 빨리 채용된다.<sup>31)</sup> 넷째, 과거의 경험이다. 다른 문화권으로부

터 새로운 것을 많이 받아들였을수록, 더 쉽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sup>32)</sup>

그러나, 실제로 어떤 요인이 채택과정에 작용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수용된 혁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 확산되며 개인접촉, 대중매체, 기관의 도움 등이 전파를 돕는다.<sup>33)</sup> 때로는 받아들인 하나의 특성이 계속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의 Tanala족은 관개한 농지에 벼농사 짓는 법을 수용함으로써 더 이상 이동경작을 하지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토지제도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제도까지도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다.<sup>34)</sup>

Herskovits는 문화의 형태, 사용 방법, 의미, 기능 등에 있어서 변형되거나 수정되어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을 재해석(reinterpretation)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재해석의 과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용하는 문화의 기준, 가치, 규범과 전파하는 문화의 그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35)</sup>

새로운 것을 먼저 채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오감환은 기존의 개념,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외된 주변적 인간인 경우가 더 쉽게 새로운 것을 채택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안정된 사람은 대체로 보수적이어서 변화에 대해 저항적인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소극적이다.<sup>36)</sup>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이 높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게되면 혁신의 전파는 빠르고 쉬워진다.

30) Rogers, E. M. op. cit., pp.81~86

31) 오감환, 사회의 구조와 변동, 박영사, 1974, pp.250~252

32) Anspach, K. A. and Kwon, Y. H., Western Dress Styles Adopted by Korean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 1976, pp.235~242

33) 라우어, R. H., 정근식, 김해식역,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한울, 1985, p.215

34) Heine-Geldern, Robert, op. cit., p.170

35) 이광규, op. cit., 1983, p.84

36) 오감환, op. cit., pp.253~255

한 사회에 새로운 것이 전파된 경우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저항을 받게된다. 오감환은 저항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첫째, 문화적 저항이다. 각 사회의 구성원들은 기존의 통념이나 규범에 反하는 일체의 혁신을 일단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심리적 저항이다. 사람들은 관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새로운 것의 등장에는 즉각적인 반발을 하게되며, 새로운 경험은 일종의 모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저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경제적 저항이다. 새로운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도 가격이나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경제성이 없어진다. 넷째, 이념적 저항이다. 새로운 개념이나 행동양식이 집단의 이념과 충돌하면 저항하게된다. 다섯째, 기득권이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게 되면 변화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측인 기득권자는 변화를 막기 위해 저항하게 된다.<sup>37)</sup>

### (3) 강제 전파

전파된 새로운 문화의 수용에는 사회내의 절실한 요구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집단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달리 수용이 강요되기도 한다. 이광규는 전파된 문화에 대한 수용의 종류를 힘이 강한 측의 강압에 의한 경우와 힘이 약한 측의 자유의지에 의한 경우로 분류한다.<sup>38)</sup> 문화충돌(culture crash)이라 불리기도 하는 정복이나 식민지화가 강요나 강압에 의한 강제전파의 예가 될 수 있다.<sup>39)</sup> 이 때 정복한 민족이나 국가는 피정복민이나 국가에게 문화의 수용을 강요하게 되며 많은 문화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문화 수용의 강요는 전통사회의 심각한 와해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적 혼란과 개개인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전통사회는 전통적인 스트레

스나 갈등을 해결하도록 구성된 사회이므로 그와 다른 새롭고 빠른 변화에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은 빠른 변화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에 Mead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집단 전체가 변화를 원하는 경우나, 그 변화가 문화 전체에 영향을 미친 다음 차츰 부분에 영향을 파급시키는 경우라면, 변화가 부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사회적 분열과 개인적 부적응을 야기시킨다고 보았다.<sup>40)</sup> 군사적 정복이나 피정복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 이러한 결과는 더욱 극단적으로 흐른다. 강요된 문화전파가 어느 단계까지 달하면 그 사회에는 전통 문화를 재확인하고 정치적, 문화적 독립성을 되찾기위해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사례들이 흔히 나타나는데, 종교 운동이나 반란, 폭동의 가능성 등이다. 식민지에서는 외부의 강요된 권위에 대한 투쟁이 보통 독립운동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 2. 문화전파가 복식에 미친 영향

복식을 문화의 한 형태라고 볼 때,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게되면 그 문화의 복식 또한 받아들여지게 된다. 수용하는 문화에서는 그들 사회의 관습, 전통, 가치관, 기술, 제도 등에 따라 재해석하여 선택과정을 거쳐 수용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 사회내에서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Anspach과 Kown은 한국 여성에 의해 채택된 양복 스타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의하면, 서구문물을 많이 접했을수록 양복의 숫자와 wardrobe에서 양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새로운 서구문물을 많이 수용했을수록 그와 비례하여 양복도 많이 수용하게됨을 나

37) *ibid*, pp.256~260

38) 이광규, *op. cit.*, 1980, p.206

39) Haviland, W. A., *Cultural Anthropolog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5, p.368

40) *ibid*, p.369

타낸다. 또 선호하는 양복 스타일은 그들의 출생 시기와 성장시기의 사회상에 따라 달라진다. 즉, 조선시대말기에 태어나서 성장기에 한복을 착용했던 사람은 한복 치마 저고리와 유사한 블라우스와 주름치마(gather skirt) 차림을 선호하고, 日帝시대에 출생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본화된 양복을 선호하며 기모노와 유사한 straight line의 원피스나 외투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해방후 출생, 성장한 사람은 신식교육을 받고 서구문물을 많이 접했으므로 다양한 style의 양복을 선택, 소유하고 있었다.<sup>41)</sup>

Matthew는 가나 여성의 사회적 가치관과 양복의 채택정도를 살펴 보았다. 여대생들은 어머니 세대보다 서구식 결혼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여러 경우에 더 많이 양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어머니 세대는 딸 세대보다 더 많이 전통 가나복식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무릎위 길이의 치마나 단화 등은 잘 착용하지 않았고, 장례식 등 의식적인 모임에는 전통적 관습이 우세하여 전통복식이나 수정된 전통복식을 착용했다.<sup>42)</sup> 이처럼 전파에 의한 문화의 변동은 복식변천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화를 많이 수용한 사람일수록 또 다른 변화를 쉽게 수용하는 것이어서, 이미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을수록 더 쉽게 양복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Buckley와 Roach가 복식은 사회적, 정치적 태도를 전달한다<sup>43)</sup>고한 것과 같은 맥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Horn은 복식 pattern이 제도적 pattern을 반영한다<sup>44)</sup>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Robenstine과 Kelley는 전쟁과 정치적 변화가 의복변화와 상호관련이 있으나 복식의 변화 pattern과 제도적, 정치적 변화 pattern이 일치하지는 않는다<sup>45)</sup>고 하였다. 이것은 Horn의 주장대로 복식 pattern이 제도적 pattern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나, 다른 변인도 작용하므로 제도적 또는 정치적 변화와 복식 변화가 항상 같은 pattern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Kroeber는 문화요소의 하나로 복식을 보고 3세기에 걸쳐 여성복 스타일을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인 문화적 또는 역사적인 변동이 복식 스타일 변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문화적 긴장과 불안정은 복식유행의 위축과 불안정을 유발한다<sup>46)</sup>고 하였다. 즉,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등으로 사회가 불안정했던 1788~1835년 사이에는 의복 스타일에도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했으며, Victoria 왕조가 다스리던 1835~1905년까지는 19세기 산업의 정점을 이루는 안정된 시기였으므로 복식 style에도 변화가 적고 안정되었다. 1905~1936년은 정치적 긴장 및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시기이므로 복식 style도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하였다. 그러나, 복식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사회심리적 상태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그러한 경향이 있으며 그 관계는 선택적이고 설명이 불충분하며, 자의적(arbitrary)이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시대가 복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복식 스타일의 변동은 사회, 정치적 상황으로만 탐지될

41) Anspach, K. A. and Kwon, Y. H., op. cit.

42) Matthew, L. B.,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ism of Dress and Social Value of Ghanaian Women, HERJ, 7, 1978, pp.121~127

43) Buckley, H. M. and Roach, M. E., Clothing as a Nonverbal Communication of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HERJ, 3, 1974, pp.94~102

44) Horn, M. J., The Second Skin(2nd ed),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45) Robenstine, C. and Kelley, E., Relating Fashion Change to Social Change : A Methodological Approach, HERJ, 10, 1981, pp.78~87

46) Kroeber, A. L., op. cit., 1952, pp.358~372

수 없고 유행구조 속에 있는 어떤 것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행혁신자 및 유행선도자에 대한 연구에서, Kim과 Schrank는 사회경제적 수준은 유행혁신성 및 유행의견선도력과 관계가 없으나, 변화지향적 태도는 유행혁신성 및 유행의견선도력과 관계가 있다<sup>47), 48)</sup>고 하였다. 또한 김민자와 김정호는 서울과 대전 거주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행의견선도력과 유행선도력 모두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sup>49), 50)</sup>고 결론지었다. 이상과 같이, 유행선도력과 사회경제적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Ⅲ. 우리나라 개화기와 일제시대의 복식 변천 - 양복수용을 중심으로

#### 1. 衣制를 통해서 본 복식변천

개화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식의 변화가 심했던 시기이다. 통일 신라시대 28대 진덕여왕 이후, 중국복식과의 이중구조를 갖게 되면서 중국복식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나, 이 시기에 서구문화를 접하게 되고 서양복식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제도상의 복식규정 변화도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빠르고 컸으며, 그 동안 착용되었던 중국식 관복이 1990년대에 歐美식 관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고종실록에 기록된 바를 보면, 고종 21년(1884)

5월 甲申衣服改革에서 朝服, 祭服, 喪服은 先聖의 遺制로서 변경할 수 없으나, 모든 조정의 관원들은 堂上관의 時服인 紅團領을 입지 말고 盤領窄袖인 黑團領을 입을 것이며, 대소의 朝儀에 진현할 때와 궁내외의 公故가 있을 때에는 흉배를 달아서 文武와 階品의 구별을 삼도록 하고 있다.<sup>51)</sup> 이에 따라 예조에서는 동년 6월 私服變制節目別單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衣制의 간소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이 법령은 오랜 관습과 전통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림이 의복개혁 반대 상소를 올려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sup>52)</sup>

고종 31년(1894년) 6월에 軍國機務處에서 의결 공포한 바에 의하면<sup>53)</sup> 朝官의 衣制를 간이하화되 공식복장으로는 紗帽에 盤領, 窄袖, 品帶를 착용하고, 燕居의 私服은 漆笠, 塔護, 絲帶로 하며 士庶人의 복장은 漆笠, 周衣, 絲帶로 하고 兵卒의 衣制는 이전의 것을 따르되 將官과 兵卒의 구별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 일본측은 稱帝建元하고 弟頭洋服하기를 제의했으나, 국왕이하 정신들이 놀라 불응하였으므로 稱帝하는 대신에 大君主陛下라 일컫고 건원하는 대신에 개국기원을 채택하며 弟頭洋服대신에 廣袖와 長纓, 長竹을 금하고 복제의 간소화를 기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말았다.<sup>54)</sup>

정부는 또한 동년 12월(양력 1895년 1월) 10가지의 칙령을 반포하여 조관의 복식을 더욱 간소화시켰는데, 朝臣의 大禮服은 黑團領으로, 進宮時의

47) Kim, M. and Schrank, H. L., Fashion Leadership : A Two-Culture Study, Part 1 : Fashion Leadership among Korean College Women, HERJ, 10, 1982, pp.227~234

48) Schrank, H., Sugawara, A. I. and Kim, M., Fashion Leadership : A Two-Culture Study, Part 2 :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Fashion Leader, HERJ, 10, 1982, pp.235~240

49) 김민자, 김정호, 패션리더쉽에 관한 연구-제1보, 서울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1(1), 1983, pp.11~20

50) 김정호, 김민자, 패션리더쉽에 관한 연구-제2보, 서울과 대전 여대생의 패션 리더쉽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1(2), 1983, pp.1~6

51) 고종실록, 권21, 고종21년 윤 5월, 6월

52) 김미자, 개화기의 복식, 한국의 복식, 문화재 관리공단, 1982, pp.407~408

53) 고종실록, 권31, 고종31년 6월

54)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p.406



통상복은 흑색의 周衣와 塔襪에 紗帽, 靴子로 하되 來歲正朝로부터 시행토록<sup>55)</sup> 함으로써 金冠朝服과 公服, 常服은 자취를 감추고 公服에 착용하던 흑단령이 대례복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또 고종 32년(1895) 3월 을미개혁에서 公常예복중 塔襪은 입지말고 進宮時에만 帽靴, 紗帶를 사용하고, 周衣는 관민이 다같이 흑색으로 하라고 했으며, 그 이유는 의제상으로도 관민을 一視하사 구별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다.<sup>56)</sup>

동년 4월 칙령 제78조로 육군복장규칙을 반포하여<sup>57)</sup> 훈련대 보병과 장교복식이 양복화되었다. 그 후 차차 적용의 범위가 넓어져 4월19일 칙령 제 81호로 경무사 이하의 복제를 재가하여 반포했으며, 8월6일에는 군부내의 무관과 相當官에도 적용시켰고 9월5일에는 일반군인에게까지 해당시켰다. 이로써, 具軍服은 자취를 감추고 歐美식 군복이 착용되었다. <도 1>은 1895년초 전봉준과 그를 서울로 압송해 가는 관리들의 모습<sup>58)</sup>으로 양복과 한



<도 1> 압송되어 가는 전봉준  
(출처 :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p.30)

복 제복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衣制는 간소화와 신분상징성 감소의 방향으로 변화가 계속되었다. 1895년 8월에는 문관의 복장식이 반포되었는데 조복과 제복은 舊例대로 착용하고 대례복은 黑團領, 紗帽, 品帶, 靴子로, 소례복은 黑團領, 窄袖袍, 紗帽, 束帶, 靴子로 하며 흑대례복 때에 착용해도 좋다고 했고, 통상예복은 周衣, 塔襪, 紗帶로 하라고 하였다. 士庶의 의복도 편리한대로 하되 廣袖는 하지말고 예복 이외에는 검약하도록 하였다.<sup>59)</sup>

제3차 김홍집 내각은 일본 세력의 지원 아래 여러가지 개혁 정치를 시행하여 고종 32년(1895) 을미년 11월 15일 의복은 옛과 같이 백색을 쓰고 망건을 폐지하며 의복제도는 외국의 것을 채용해도 무방하다고 함과 동시에, 의복사상 획기적인 단발령을 내렸다. 단발령은 유길준을 비롯한 개화파 대신에 의해 발의된 것이기도 하다.<sup>60)</sup> 그날밤으로 국왕이하 정부대신들의 삭발을 단행하고, 다음날 아침에 정부 각부의 관료와 병정, 순검까지도 삭발을 단행케 했다. 개화파에 의해 주도된 단발령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sup>61)</sup>

1896에는, 冠의 모양은 외국 것을 모방하되, 재료는 국산을 사용하고 의복도 모양은 외국 것이되 紬, 綿, 布, 苧를 사용하고 履는 舊制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sup>62)</sup> 1897년 5월 15일을 기하여 特下陸軍服裝規則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최초로 제정되었던 복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1899년 3월에는 警務使, 警務官總巡의 복장개정이 있었고 6월에는 원수부의 관제가 새로이 제정되어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제의 복장도 육군 복장에 준

55) 고종실록, 권32, 고종31년 10월

56) 고종실록, 권32, 고종32년 3월

57) 고종실록, 권33, 고종32년 4월

58)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上, 서문당, 1987, p.30

59) 고종실록, 권33, 고종32년 8월

60) 유수경, 한국여성 양장변천사, 일지사, 1990, p.25

61) 유희경, op. cit., p.409

62) 김미자, op. cit., p.410

〈표 1〉衣制에 따른 양복수용과정

연 도	복식변천내용
1884. 5	조정의 관원들은 紅團領 대신 盤領窄袖인 黑團領 착용(갑신외복개혁)
1894. 6	朝官의 衣制를 간이화; 공식복장으로 紗帽, 盤領, 窄袖, 品帶 착용 燕居의 私服은 漆笠, 塔護, 絲帶 착용. 士庶人은 漆笠, 周衣, 絲帶 착용
1884. 12	朝臣의 大禮服으로 黑團領 착용. 進宮時 통상복은 흑색 周衣, 塔護, 紗帽, 靴子 착용 -> 金冠朝服과 公服, 常服 사라짐
1895. 3	公常에복중 搭護착용금지. 관민 모두 흑색 周衣 착용(을미개혁)
1895. 4	훈련대 보병과 장교복식의 양복화
1895. 8	문관의 복장식; 조복과 재복은 舊例대로 착용. 대례복은 黑團領, 紗帽, 品帶, 靴子 착용. 소례복은 黑團領, 窄袖袍, 紗帽, 束帶, 靴子로 하며 대례복으로 착용 가능. 통상예복은 周衣, 塔護, 紗帶 착용. 士庶의 의복은 편리 한대로 하되 廣袖 금지
1895. 9	具軍服 양복화된 군복착용
1895. 11	의복은 이전 같이 백색 사용, 망건을 폐지, 양복착용해도 무방. 단발령
1896. 2	冠의 모양은 외국 것을 모방하되 재료는 국산 사용, 의복 모양도 외국 것이되 재료는 紬, 綿, 布, 苧를 사용.
1899. 3	警務使, 警務官總巡 복장개정.
1899. 6	황제의 복장이 육군 복장에 준하게 됨.
1899. 8	외교관 복장 양복화, 國內 문관은 소례복에 품대 사용하여 대례복으로 착용
1900. 4	文官 복식의 양복화 -> 우리나라의 관복은 완전히 양복화됨



〈도 2〉 양복화된 황제복장의 고종  
(출처: 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p.242)

하게 되었다.<sup>63)</sup> 8월에는 외국에 가는 사신의 복식을 外規를 참작하여 지정하도록함으로써, 외교관 복장이 양복화되었고 국내의 문관은 소례복에 품대만 더 꾸며 대례복으로 입도록 했다.<sup>64)</sup> 외교관 복장이 공식적으로 양복이 된 것 또한 획기적인 것이다.

1900년 4월17일 칙령 제 13호로 훈장규칙을 정하고 제14호로 文官服裝規則을 정했으며 제15호로 文官 大禮服 制式을 정하여 歐美式 관복으로 바꾸고, 광무 10년에는 상의만 개정하였다.<sup>65)</sup> 이로써 우리나라의 관복은 완전히 양복화되기에 이르렀다. 대례복은 대례모와 대례의로 영국의 궁중 예복을 모방한 일본의 대례복을 참작한 것이고, 소례복인 frock coat와 연미복은 유럽제국에서 사용되던 시민의 예복이었으며, 상복은 구미에서 착용되던 시민의 평복인 sack coat와 같은 것이었다.<sup>66)</sup>

63) *ibid.*, p.417

64) 손경자, 김영숙,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조선편Ⅱ, 교문사, 1982, p.472

65) 고종실록, 권37, 광무2년6월

66) 유희경, *op. cit.*, pp.413~41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도상으로는 1895년 이미 군복이 구미식 군복으로 바뀌었고 외국 양복을 입어도 좋다고 했을 뿐 아니라 단발령이 내려졌다. 1899년 외교관 복장이 양복화되었고, 1900년에는 문관복장을 歐美式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처 개화사상에 눈뜨기 전이었고 새로운 서구문물을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급작스러운 문화수용의 강요는 국민들의 문화적, 심리적, 경제적 저항을 유발시킨 원인이 된 것이다.

## 2. 교복을 통해서 본 복식변천

우리나라 개화기 교육의 특징으로는 남자 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소외되었던 여자와 서민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개방되었다는 점, 서양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구교육체제를 탈피하여 서구문물 수용의 교도보가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초창기에 설립된 학교로는 1886년의 이화학당, 배제학당, 경신학교, 1894년의 광성학교, 숭덕학교, 1895년의 정신여학교, 일신학교 등의 기독교 학교가 있었다. 정부에서도 관리채용을 위한 새로운 시험제도가 실시되던 것과 더불어 교육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1886년 육영공원을 설립하고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신교육을 시행했다.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 훈련대사관 양성소등을 설립하여, 교사, 통상의 사무요원, 육군사관을 양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독교 사상과 개화사상에 일찍 접한 학생들의 복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문화전파 과정과 관련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여학생 교복

1886년 최초로 설립된 이화학당은 한국 풍속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의 교복을 제정하고자 했다. 당시의 의복형태는 일반부녀의 복식처럼 치마는 발을 덮는 긴 치마였고, 저고리의 길이는 허리가 보일 정도로 매우 짧았다. 기숙학교였던 이화학당은 학생이 열명이 넘자 치마 저고리를 똑같이 아라사제의 붉은 목면 옷감으로 만들어 입혔다. 이렇게 모든 학생이 동일한 의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복의 효시였다. 치마, 저고리를 각각 다른 색으로 입는 한복과는 다른 상,하 동색의 복식은 그 후 전도부인을 비롯한 개화여성들 사이에 널리 착용되게 되었다. 그 후 붉은 교복은 1900년까지 어린 학생들에게는 착용되었으나, 큰 학생들에게는 옥색 치마에 흰저고리가 교복처럼 되었다.<sup>67)</sup> 머리는 길게 땀아 늘였으며 나이든 학생은 트레머리를 하였다. 겨울에는 갓저고리를 덧입거나 솜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쓰개치마나 장옷을 쓰고 다녔다.<sup>68)</sup>

최초의 양장 교복은 1907년 숙명여학교에서 채택된 것으로, 자주빛 원피스에 분홍색 안을 댄 본넷을 곁들인 유럽식이었다.<sup>69)</sup> 숙명학교 학생만이 착용했던 이 선구적 양장 교복은 1910년 한일합방이 되던 해 폐지되고, 겨울에는 자주빛 치마 저고리, 여름에는 자주치마, 흰저고리를 교복으로 착용하였다. 이처럼 한일합방으로 인한 반일감정 때문에 양복으로 변화해 가던 복식이 다시 한복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복식문제 이전에 독립운동과 구국사업 후원에 전력을 기울여 나라를 되찾자는 애국심의 발로로, 양장은 사치스럽고 빈망하다는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며, 교복도 그 영향을 받아 개정된 것이다.<sup>70)</sup>

1920년대에는 대부분의 여학생 복장이 흰저고

67) 유수경, op. cit., pp.134~135

68) 박경자, 일제시대의 복식, 한국의 복식, 문화재관리공단, 1982, p.456

69) 유수경, op. cit., p.139

70) 박경자, 한국복식논고, 신구문화사, 1983, p.260

리 또는 담색(淡色) 저고리에 검은 치마로 통일되어 같다. 점차 치마의 길이가 짧아져 발등을 덮던 것이 무릎 정도로 짧게 올라갔으며, 짧은 통치마에는 주름을 잡았다. 넓은 주름이 점차 좁아지면서 치마의 길이도 짧아졌으며 저고리의 길이는 점차 길어져 활동성이 강조되었다.<sup>71)</sup> 치마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다리가 점차 드러나게됨에 따라 양말과 구두가 착용되었고 속옷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전의 다리속곳, 속속곳, 바지, 단속곳, 너른 바지, 무지기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속셔츠, 팬티, 블루머, 속치마를 입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화여성들도 한동안은 전통 속옷들을 안에 입었는데 이는 몸의 선까지는 남에게 보일 수 없다는 종래의 유교적 인습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sup>72)</sup> 이처럼 한복에 양복의 요소를 가미한 짧은 통치마의 수용과 더불어 챙머리가 유행하게되고 점차 속옷까지 변화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9세기 말경까지 모든 여성이 외출시 착용하던 쓰개치마와 장옷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쓰개치마와 장옷을 벗게한 결과 동교하는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어, 검정 우산이나 흰수건을 대신 쓰게하기도 했다. 통학길에 쓰개치마와 장옷이 사라진 것은 1910년대에 이르러서였다.<sup>73)</sup>

1931년 문부성 특명으로 교복을 양복으로 바꾸어 입도록 하였으나 학생들이 연관장을 찍으며 결사반대하였으므로, 이화학당에서는 1935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게 되었다.<sup>74)</sup> 이 시대 교복은 블라우스, 치마, 세일러복, 타이, 모자 등이 주를 이루었다. 1931년 개정된 숙명학교의 교복은 여름에는

흰 블라우스에 감색 점퍼스커트를 입고 자주색 리본을 단 흰모자를 썼으며, 겨울에는 세줄의 흰선을 대고 자주빛 넥타이를 맨 세일러복 상의에 곤색 치마를 입고 자주빛 리본을 단 곤색 모자를 쓰고 스웨터를 입기 시작했다. 스타킹은 검정이나 감색이었고 머리는 잘 빗어넘겨 한두 갈래로 땀아내렸다. 동덕 또한 하복은 남색 넥타이를 맨 흰 세일러복 상의에 검정 감색의 맞추름 치마를 입었고 동복은 검정 감색의 세일러복 상의와 맞추름 치마를 입었다.<sup>75)</sup> 1935년 이화학당의 양복교복은 재킷, 블라우스, 치마로 되어있다.<sup>76)</sup>

1939년에 숙명학교는 하복을 흰 블라우스와 검정색 바지로, 동복을 검정색 상하의로 개정하였다.<sup>77)</sup>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바지착용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바지 교복을 입게되었다. 그러나 정신여학교는 日帝의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한복을 입었으며, 1942년 전시복을 강요하는 중에도 무궁화를 상징하는 보라빛 저고리를 입었다고 한다.<sup>78)</sup> 이처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930년대부터 점차 양복 교복을 입게 되었으나, 1940년에서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는 여학생에게도 전투복 차림의 슬렉스나 몸빼를 권장하였다. 한편 1942년에는 전국 남녀중등학생의 교복을 통일하라고하여 교복개정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개화사상과 기독교 정신을 접한 여학생들은 일반부녀들보다 먼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따라서 교복을 통한 양복의 수용도 빨랐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을 전환점으로 전과 agent인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문화수용

71) 박경자, op. cit., 1982, p.458

72) 유수경, op. cit., p.182

73) 박경자, op. cit., 1982, p.456

74) ibid, p.458

75) 유수경, op. cit., p.205

76) 박경자, op. cit., 1983, p.259

77) 유수경, op. cit., p.232

78) ibid, p.264

에 있어서 문화적, 심리적으로 저항하게 되었다. 양복의 요소를 가미하여 활동성을 강조한 변형된 한복과, 한복과 양복이 혼용된 차림의 교복이 착용되다가, 1930년대초 침략자인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양장교복으로 바뀌게 되었고, 1940년대에는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전시복을 입게 되었다. 여학생들의 양장 교복과 새로운 머리형은 일반부녀에게 양복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했으므로, 이 시대의 여학생들은 유행선도자로 볼 수 있다.

## (2) 남학생 교복

1886년 창설된 경신학교 학생들의 의복차림은 1900년경까지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한복 저고리와 바지에 두루마기를 입었다.<sup>79)</sup> 머리는 상투를 틀고 망건에 갓을 썼으며 땀은 머리에 땀기를 드리기도 했다. 1895년 외교관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관립 외국어학교 학생들은 단발령에 따라 머리를 자르고 양복차림으로 학교를 다녔다.<sup>80)</sup> 1910년대에는 머리의 변화가 먼저 와 대다수의 학생들은 작은 머리에 학생모자를 쓰고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다. 겨울에는 주로 검정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고름 대신 단추를 달고 학교의 표식으로 뺨지를 달기도 했다. 1915년경에는 거의 작은 머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이와 바지 저고리 위에 망또나 오우버 코트를 입은 학생도 있었다.<sup>81)</sup> 한편 <도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브란스 병원학교 제1회 졸업생들은 1908년6월 짧은 머리에 학사모 및 졸업가운을 입고 있다.<sup>82)</sup>

1920년대에는 많은 학교에서 양복 교복을 입게 되었다. 검은 색이나 회색 등의 옷감으로 stand collar와 앞에 단추 다섯개가 내리달린 모양으로 80년대초까지 착용되던 교복과 큰 차이는 없었다.



<도 3> 세브란스 병원학교 제1회 졸업식  
(출처 :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p.90)

그 당시 여러 학교의 교복은 거의 같은 모양으로 뺨지, 모자, 단추에 표시된 학교의 상징만이 다를 뿐이었다.<sup>83)</sup> 여학생의 교복이 양복으로 정착된 시기가 1930년대인 것과 비교해 볼 때 10년 정도 앞선 것이었다. 이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는 남성이 여성보다 혁신을 더 빨리 수용했음을 나타낸다.

운동경기가 왕성해지면서 유니폼도 등장했다. 여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40년 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국의 학생들은 전투복 차림으로 교련 훈련을 받기도 했으며, 교사들도 국방색의 모자와 양복에 각반을 친 전투복 차림을 했다.<sup>84)</sup> 1920년대 남학생의 교복이 양복으로 바뀐 결과, 일반인들도 양복에 익숙하게 되었고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초창기 여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남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았

79) 박경자, op. cit., 1982, p.463

80) 김미자, op. cit., p.410

81) 박경자, op. cit., 1982, p.463

82)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op. cit., p.90

83) 박경자, op. cit., 1982, p.464

84) ibid, p.465

으므로 여성복보다 남성복에서의 양복수용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Rogers가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이 높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일단 선택하면 혁신의 사회 내 전파는 매우 빠르고 쉬워진다고 주장한 이론을 지지한다.

### 3. 사회상을 통해서 본 복식변천

#### (1) 여자 복식

개화기와 일제시대를 통해 법제에 나타난 여성복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남성복의 간소화, 기독교의 전파, 신식교육기관의 설립, 계급타파, 남녀평등의 요구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복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복에서 양복이 등장한 것은 1899년경으로, 尹致旵가 외국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본인은 물론 부인 尹高羅까지도 양장을 하게 한 것이 그 효시가 된다.<sup>85)</sup> 尹高羅가 입은 양복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S자 스타일이었고, 비단 양말, 굽낮은 펌프슈즈를 신고 리본과 새의 깃털이 장식된 모자를 썼으며 양산을 들었다.<sup>86)</sup> 최초로 양복을 착용한 여성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異見이 제시되고 있는데, 남윤숙은 尹致旵의 부인 李淑卿이 1890년 일본에서 최초로 양복을 착용하였으며, 한국에서 여성 양복의 시작은 1899년 경옥당이라는 여인에 의해서라고 주장한다.<sup>87)</sup> 그러나, 그 시기가 1899년 경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갑오경장 이후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고 따르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시한 바 있었으나 그 실효는 미미하여 남성들간에도 군인 이외에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거

의 없었던 당시였으므로, 여성이 양복을 착용했다는 것은 매우 경이적이며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또한, 단발령 이후 양장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엄비의 모습도 볼 수 있다.<sup>88)</sup> 1900년에는 미국에 유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된 박에스터가 귀국하여 우아하고 검소한 양장의 모습을 보여 주었고, 역시 미국 유학후 우리나라 최초의 文學士가 된 河蘭史는 베일과 모자를 착용한 클래식하고 품위있는 양장차림으로 귀국하였다.<sup>89)</sup> 고종대의 마지막 미국 공관장이었던 김윤정의 부인 고순영도 양장을 하고 미국에서 돌아왔으며, 그 뒤에 양장을 한 사람은 진명여학교 교사인 에밀레 황이었다.<sup>90)</sup> 또한 1892년 가을에 이화학당 학생과 배제학당 학생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는데 신부는 면사포, 신랑은 frock coat 차림에 禮帽를 쓰고 예물교환까지 하는 최초의 기독교식, 신식 결혼식이었다.<sup>91)</sup> 1900년대초 保救女館의 간호학교 학생들과 간호원의 제복도 양복화되었으며, 머리에는 작고 흰 모자를 살짝 얹은 모습을 볼 수 있다.<sup>92)</sup>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서양 여성을 보다 먼저 접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서구사상과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인 전도부인들의 복식도 양복수용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양복의 간편함과 활동성을 모방해 우리 옷을 개량하여 착용하였는데, 저고리는 순색으로 길이가 길고 치마는 짧게 했다. 머리는 쪽에 비녀를 꽂았고, 속옷은 단속곳, 바지를 그대로 입었으며 버선에가신도 그대로였다. 치마가 짧아지는 경향과 더불어 버선목이 길어졌으며, 1910년경 양말이 등장하면서 양말로 대체되었다.

85) 유희경, 한국여성복식의 연구, 한국여성사 II,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72, p.247

86) 유수경, op. cit., pp.132~133

87) 남윤숙, 한국현대여성 복식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복식, 14, 1990, pp.99~117

88) 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동아일보사, 1978, p.243

89) 유수경, op. cit., p.133

90) 유희경, op. cit., 1972, p.247

91) ibid, 1972, p.245

92) 유수경, op. cit., pp.138~139

여성들의 외출시에 필수적이었던 장옷, 쓰개치마는 班常의 차별이 철폐되자 중인계급 이하에서 사용하던 장옷은 자연 자취를 감추고 쓰개치마를 사용하게 되었다. 1900년경부터 개화한 일부 고관 부인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및 여학생들을 선두로 점차 쓰개치마를 벗어버리게 되었으나, 1930년대까지는 존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때 쓰개 치마 대용으로 검정 우산을 사용하기도 하였다.<sup>93)</sup> 1907년 최활란은 당시 동경서 유행하던 쟁머리를 한 후 양말에 구두를 신고 검정 통치마를 입고 귀국하였다.<sup>94)</sup> 이와 같이 전도부인들과 신여성들은 기존의 유행을 탈피해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fashion innovator의 역할을 담당했다.

1906년 11월 만세보 등에서 논의되었던 의제개정법 제정을 보면, 長衣 착용을 폐지할 것을 제시하였고,<sup>95), 96)</sup> 1907년 6월 제국신문 논설에서는 전통적인 치마저고리 형태를 기본으로하고 양복의 잇점을 살리는 개량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97)</sup> 당시 신문에서는 여복개량을 강조함과 함께 사치스러운 서양복식 또는 일본복식을 입는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白衣착용금지 1900년대부터 꾸준히 거론된 운동이었다. 1905년경부터 거의 일제시대 말기까지 황성신문, 매일신문, 동아일보<sup>98)</sup> 등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식 관련기사로, 다른 복식 관련기사들이 문화면에 게재된 것에 비해 白衣 폐지 및 色衣 장려는 대부분 사회면 기사로 다루어졌다. 白衣폐지의 이유로는 세탁에 드는 시간, 돈, 노력을 줄이자는 경제적 이유와, 喪服색인 백색 대신 有色을 사용하자는 심리적 이유, 쉽게 더러워져서 불결해 보인다는 미관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白衣폐지운동의 시작은 통감부 정치가 시작된 1905년경부터 日帝말기까지 지면을 장식했던 것과 함께, 白衣 착용자의 옷에 ‘色’자나 ‘白衣의 中毒病者’등의 글씨를 찍거나, 白衣에 먹물을 뿌릴 뿐 아니라, 관공서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제성을 띠었으나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1913년 이후에는 쓰개류에 관한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가시적이고 간단한 물질문화 요소의 수용은 쉽고 빠르게 전개되나, 민족의 내면 정신 세계 및 가치관과 관련된 비물질문화의 수용은 훨씬 어렵고 복잡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염색이나 유색 염료 구입에 필요한 경비등 기타의 경제적인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色衣의 비율은 점차 늘어났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色衣 수용이 빨랐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여성의 저고리는 그 길이가 길어져 겨드랑이 옆선의 길이가 1cm였던 것이 13~14cm가 되었고, 화장이 짧아졌다. 치마는 통치마에 주름을 넓게 잡아 양장의 플리츠 스커트처럼 치마단까지 곱게 내린 형태이며, 그에 따라 속적삼, 고정이등이 차차 없어져 갔으며 서구식 내의류를 많이 입게 되었다. 이에 단발머리와 하이힐을 착용한 모습이 당시의 전형적인 신여성 모습이었다. 하이힐 외에 양화, 경제화, 당혜, 운혜의 모양을 모방한 고무신 등도 등장했으며 더불어 양말도 착용하게되어, 양말과 버선의 이중구조를 갖게되었다. 한복에 하이힐, 양말 뿐 아니라, 파마와 같은 서양식 머리모양, 숄, 양산등 양복의 요소들도 함께 착용되었다.<sup>99)</sup> 외복은 점차 간소화되고 활동과 외출에 편리한 형태로 변하여 치마는 폭이 줄어들고 짧아졌다. 그러나 집안에서나 외출시에

93) 남윤숙, op.cit.

94) 유희경, op.cit., 1981, p.427

95) 만세보, 1906년 11월 22일, 23일

96) 제국신문, 1906년 5월 31일

97) 제국신문, 1907년 6월 19일

98) 손명인, 김진구,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 연구, 복식, 14, 1990, pp.145~165

99) 유수경, op. cit., p.204

는 아직 긴치마를 착용했으므로 짧은 치마와 긴 치마의 이중구조로 남게 되었다. 양장차림도 점차 증가하여 유행을 따르기가 바빴다고 한다.<sup>100)</sup>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40년 5월 애국반이라는 명칭으로 가정부인도 방공훈련을 받게되면서 일본여성의 노동복인 몸빼를 입도록 강요되었다. 하지만을 外衣로 착용한 적이 없던 한국여성들이 처음에는 수치감에서 잘 입지않았으나, 몸빼를 입지않고는 관공서나 공공 집회장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전차와 버스의 승차도 금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정책에 의해 바지착용은 점차 확산되었다.<sup>101)</sup>

이와 같이, 여성의 양복은 처음에는 사회경제적 상류층의 부인들과 외국을 직접 다녀와 서구문물을 접한 사람들에 의해 착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구문물을 수용한 신여성들, 여학생들, 전도부인들이 착용한 양복의 요소를 가미한 한복과 그와 함께 착용된 셔츠, 양말, 하이힐, 서양식 헤어스타일, 양산들, 그리고 그들이 착용한 양복 등이 양복수용이 확산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겠다. 그 이후 점차 일반 부녀들에게까지도 양복의 외의류 및 내의류가 보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2) 남자복식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양복을 최초로 착용한 사람은 개화파 정객들인 金玉均, 徐光範, 俞吉潑, 洪英植, 尹致旼라고 할 수 있다. 30세인 김옥균을 최고 연장자로 하여 모두가 20대 소장정객이었던 이들은 1881년을 전후하여 紳士遊覽團, 修信使節團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미국 남성들의 평상복인 sack coat를 구입하였다.<sup>102)</sup> 또, 고종 19년(1882년) 韓美修好通商條約에 조인한 그 이듬

해 푸트 미국 공사가 부임해오자, 친선도모와 통상협의를 위해 사신을 특파하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대미 공식외교사절인 이들 報聘使 일행은 奎權大使에 閔泳翊, 副大使에 洪英植, 宗사관에는 徐光範, 수행원 유길준 등 모두 11명이었다. 1883년 7월 26일 출발한 조선사절 일행이 국민으로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이들의 이상한 복장에 놀란 미국인들은 '뉴욕 헤럴드'에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sup>103)</sup>

민영익 대사의 朝官服은 자색비단의 長闊한 外衣, 흰바지, 황금으로 기이하게 아로새긴 넓은 腰帶, 자주빛 바탕에 희게 수놓은 雙鶴의 흉배, 비단과 대나무, 말총으로 만든 黑笠을 썼으며...

또한 <도 4>와 같이 1883년 9월29일 New York에서 발행되는 'News Paper'지에는 민영익 일행이 Arthur 대통령을 접견하는 사진이 실렸다. 이



<도 4> Arthur대통령을 공식접견하는 민영익일행  
(출처 : News paper, 1883. 9. 29)

100) 유희경, op. cit., 1972, p.267

101) 남윤숙, op. cit.

102)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pp.625~626

103) ibid, pp.627~629



러한 모습으로 미국 및 유럽등지를 구경하고 귀국할 때는 양복을 한 벌 씩 구입하였으며, 귀국 후 이들은 복식개혁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대당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1884년 양파의 의견을 종합해 甲申衣制改革을 단행하게 되었으나, 보수적인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 혼자 미국에 남아 유학을 하던 유길준은 1884년 11월에 서구식으로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었으며,<sup>104)</sup> 1886년 귀국하였다.

1888년에는 최초의 駐美全權公使로 박정양 등 10명의 일행을 미국으로 보내게 되었으며, 이들의 복식 역시 워싱턴 외교계에 화제가 되었다. 이들을 우리나라에서부터 수행했던 미국인 Allen은 '우아한 색깔의 명주 옷을 입고 실내에서도 갓을 씌으로써 워싱턴을 발각 뒤집어 놓았다. 갓은 반짝이는 검은 말총과 명주와 대나무로 만든 것인데 꼭대기는 편편하고 테두리에서 6인치나 위로 솟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05)</sup> 그 이후 외교관 복식에서는 일시적으로 양복과 한복의 혼용 형태가 나타났다. 버선에 구두, 상투머리에 모자등이 그것이다. 또한 1895년 11월 15일, 의복사상 획기적인 단발령이 내려졌다. 당일 국왕이하 정부대신들의 삭발을 단행하였고, 다음날 정부 각부의 관료와 병정, 순검까지도 삭발을 단행케 했다. 일본에 유학중이던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은 본국의 단발령을 듣고 즉시 단발하고 양복으로 갈아입기도 했으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맹렬하게 반대했으며 頭可斷髮不斷라고 버티었다.<sup>106), 107)</sup>

이러한 가운데 양복이 차츰 일반화되어 갔으나, 한복이 아주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고 혼용되었다. 버선에 구두를 신기도 하고, 한복차림에 파나

마 모자, 맥고모자, 중절모자를 쓰기도 했으며, 한복에 망토나 오우버코트를 입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 黑笠의 제작기법으로 만들어진 영국신사모 형태의 말총모가 착용되기도 하였는데, 모자 꼭대기에 한지로 8개의 학문을 오려 안에다 붙인 것이다.<sup>108)</sup> 매일신문에는 1912년 이후 서양의 메리야스 內衣의 관리법 등에 대한 기사가 여러 번에 걸쳐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서양 內衣의 사용도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9)</sup> 상투머리는 1940년대에 이르러 거의 모습이 사라지고 중머리나 하이칼라머리를 하게되었다. 1920년경부터는 고무신이 나오게되어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부유층에서는 서양식 단화를 신기도 했다.

여자복식과 마찬가지로 남자복식도, 초기에 양복을 도입한 사람은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이거나 외국에 다녀와 서구문물을 직접 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용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양복이 수용되어 오늘날과 같이 일상복화 하였음을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과

우리나라 개화기와 日帝侵略시기는 서구문물의 급격한 전파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회변동이 심했고 따라서 복식의 변화도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우리 복식사중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중국복식과의 이중구조에서 벗어나 양복과의 이중구조를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느 사회나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데에는 여러

104) Bean, Susan S., The Late Choson Dynasty in Ameraca :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Peabody Essex Museum, 국립중앙박물관, 유길준과 개화의 꿈, 1994, p168

105) Allen, H. N., 신복용역, 조선전문기, 박영사, 1979, p.169

106) 김미자, op. cit., p.409

107) 유희경, op. cit., 1981, p.404

108) 국립중앙박물관, 유길준과 개화의 꿈, 1994, p.94

109) 김진구, 개화기 한국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 II, 한국생활과학연구, 12, 1994, pp.13~23

가지 변인이 작용하며, 그 변인의 종류, 영향력 등에 따라 수용하는 과정의 양상도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양복수용 과정도 문화전파과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복식변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게 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개화기는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시작되었고, 일본은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강제적,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조선을 개혁시키기 위한 衣制개혁의 일환으로 양복 착용을 권유, 강요하였으며, 가시적인 복식의 변화를 시작으로하여 비가시적인 문화의 변화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수용된 한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계속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이다. 그런 연유로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20여 년 앞서 개화가 시작된 일본을 통해 양복 수용을 강요받는 특이한 상황을 맞게 된다.

일본의 압력에 의해 정부가 주도한 강제적, 급진적 복식 문화의 개혁은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 관습, 가치관, 제도 등과는 다른 것을 수용해야 하는데 대한 문화적 저항,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갑자기 수용해야 하는데 따른 심리적 저항, 그리고 새로운 의복과 내의류, 신발, 기타 accessory를 구입하는데 따른 경제적 저항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정복자에 대한 강한 민족적 반감 때문이었다. 이것은 강요나 강압에 의한 강제 문화전파시 나타나는 것으로 Haviland가 문화충돌이라고 명명한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새로운 양복 문화가 수용되고 확산되는데 있어서 유행선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접, 간접적으로 서구문물을 접했거나 수용했던 사람들이고, 또다른 하나는 개혁의 주도세력과 이익을 같이하거나 그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은 유학생, 외교관, 신식교

육기관의 학생, 전도부인, 군인, 정부관리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연령에 있어서는 중,노년층보다는 청,장년층이 더 빨리 수용했으며,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문화, 교육, 정치의 중심지이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촉의 기회가 더 빠르고 많은 도시가 농촌보다 빨랐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양복수용은 여자복식보다 남자복식에서 더 빨랐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남성 중심의 사회이므로, 衣制상의 복식변화에 있어서도 남자복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회활동도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신식교육기관의 여학생들만이 예외적으로 서양복식에 빨리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남자들은 신분을 상징하고 소속집단에 동조하며 활동성을 부여하기위해 양복을 착용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에 사회활동이 대단히 제한적이었고 가정내에서도 남자보다 지위가 열등했던 여성에게 있어서, 순종이 미덕인 유교사회 내에서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복식을 채택하는 것은 여간 용기를 요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예복, 교복 뿐아니라 일상복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늦게 양복이 수용되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강압적인 변화인 남성복의 양복화와는 달리 여성복의 양복화는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였다.

일상복보다 문관의 대,소례복, 외교관 복식, 군복, 교복 등 정부관리의 복식이나 제복과 관련된 복식에 있어서 양복수용이 빨랐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사회변동은 일본의 강요에 의한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혁이었으므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양복을 착용하기 보다는 양복이 요구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양복이 착용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령의 하향 전달식 체계가 가장 잘 이루어져 있는 군대의 복장이 가장 먼저 양복화되었다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예복, 외교관 복식, 군복, 교복 등의 양복화는 우리나라 양복수용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문화전파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문화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그대로 전파되지 않고 변형, 수정, 재해석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복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Malinowski의 ‘문화변형’의 현상이나 Herskovits의 ‘재해석’의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양복과 한복이 혼용되는 경우이다. 한복에 오우버 코트, 망토, 모자, 양말, 구두 등을 착용하는 경우라든가, 버선에 구두를 신는 경우, 상투머리에 모자를 쓰는 경우, 작은 머리에 학생모자를 쓰고 저고리와 바지 또는 두루마기를 입는 경우, 짧은 통치마를 입고 그 속에 긴 속바지등의 재래식 내의를 착용하는 경우, 또는 양복이 한복 내의와 함께 착용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다른 하나는 양복의 특징이 한복에 가미된 경우이다. 한복과 양복이 접촉한 결과 긴 한복 치마에 양복의 특징을 가미한 짧은 한복 통치마가 등장하게 된 경우, 양복 상의의 길처럼 여성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진 경우, 한복 상, 하의의 색을 동색으로 입는 경우, 우리나라 전통의 신발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고무신의 경우, 겨울에 착용하는 검정 두루마기에 고름 대신 단추를 달고 학교의 표식으로 배지를 다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양복에 한복의 특징이 가미된 특이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黑笠의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진 영국신사모 형태의 말총모가 그것이다. 모자 꼭대기에 한지로 8개의 鶴紋을 올려 안에다 붙인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당시 청나라 모자형의 말총모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1930년대 초반의 여성복식은 양복의 특징이 가미되어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지고 통치마에 넓게 잡힌 주름이 치마단까지 내려온 형태이며, 여기에 단발을 비롯한 서양식 머리, 하이힐, 슌, 양산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여 한복과 양복의 혼용 현상을 보인다. 한복에 양복의 요소를 가미한 짧은 통치마의 수용으로 인해 쟁머리가 많이 유행하게 되고 점차 속옷까지 변화하는 현상은 토지제도

를 개혁한 후 사회, 정치적 제도까지 변화하게 된 마다가스카르섬의 현상과 유사하다. 즉, 하나의 문화 요소를 받아들인 결과 더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한 두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인해 발생가능한 변동의 방향을 4가지로 제시한 Dohrenwend와 Smith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양복수용과정은 다른 문화의 규범적 구조를 지향한 재정향(reorientation)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양복이라는 새로운 복식문화와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문화가 접촉한 결과, 양복의 수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것은 그러나 두 문화만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라기보다는 전세계적인 추세였다는 점도 과할 수 없다.

전통성이 강한 복식의 변화는 매우 점진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1884년 甲申衣服改革에서 朝服과 祭服은 先聖의 유제이므로 변할 수 없다고 한 것과, 1995년 문관의 복장식이 반포되었을 때 조복과 제복은 구례대로 착용한다고 한 것 등에서 이 현상을 볼 수 있다. Matthew의 가나 여성 양복 채택 정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장례식 등의 의례적인 모임에는 전통복식이나 변형된 전통복식이 많이 착용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도 5>는



<도 5> 喪服을 입은 순종

(출처 :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p.173)

고종의 장례식 때 喪服을 입은 순종의 모습으로, 喪服의 양복화가 특히 늦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혁신에 대한 개인의 반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규범으로, 전통적인 특성이 강할수록 수용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 Rogers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내면적, 정신적인 면에 근거한 복식 특징은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白衣 착용 금지는 통감부 정치가 시작된 1905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 당시 언론매체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복식 관련 기사였을 뿐 아니라, 白衣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白衣 착용의 금지 및 色衣 착용의 장려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종교적 특성이나 기계류와 같이 가시적이고 간단한 물질문화 요소의 수용은 쉽고 빠르게 전개되나, 민족의 내면 정신 세계 및 정서, 가치관과 관련된 비물질문화의 수용은 훨씬 어렵고 복잡하며 속도가 늦다고 한 이광규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염색이나 유색 염료 구입에 필요한 경비등 기타의 경제적인 문제와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하겠다. 또한 교복이 완전히 양복화되기 이전 한복 두루마기에 서양식 학생모를 쓴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단하고 가시적인 것, 즉 모자의 수용은 빠르고 쉽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대 복식 변천의 외형적 특징은 실용화, 간편화, 그리고 신분상징성 감소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복개량 운동도 이와 같은 목적하에 진행되었으며,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치마는 짧은 통치마가 되었던 경우도 이에 속한다. 또한 여러 번의 의재개혁에서 廣袖의 袍制를 窄袖로 바꾸고 예복을 축소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전통 궁중 예복 대신 양복을 착용하게 한 것은 신분상징성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왕권을 약화시키려는 정복자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역시 복식의 실용화, 간편화의 경향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전통을 탈피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 V. 결 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문화의 전파는 사회 변동을 초래하고, 사회 변동과 함께 복식도 변천하게 된다. 우리나라 개화기 및 일제침략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양복수용과정을 나타낸 복식변천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개화기는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양복수용 역시 일본에 의해 강요되었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 일본의 압력에 의해 정부가 주도한 복식문화의 개혁에 대해서 문화적, 심리적, 경제적 등의 복합적인 저항이 나타났다.
3. 양복수용과정의 유행선도자로는 직접, 간접적으로 서구문물을 접했거나 수용했던 사람들과 개혁의 주도세력과 이익을 같이하거나 그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 외교관, 신식교육기관의 학생, 전도부인, 군인, 정부관리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양복수용은 여자복식보다 남자복식에서 더 빨랐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강압적인 변화인 남성복의 양복화와는 달리 여성복의 양복화는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였다.
5. 일상복보다는 문관의 대, 소례복, 외교관 복식, 군복, 교복 등 정부관리의 복식이나 제복과 관련된 복식의 경우 양복수용이 빨랐다.
6. 양복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Malinowski의 '문화변형'의 현상이나 Herskovits의 '재해석'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양복과 한복이 혼용되는 경우와 양복의 특징이 한복에 가미된 경우, 양복에 한복의 특징이 가미된 경우가 그 예이다.
7. 우리나라 양복수용과정은 다른 문화의 규범적 구조를 지향한 재정향(reorientation)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8. 朝服, 祭服과 같이 전통성이 강한 복식의 변화는 매우 점진적인 것을 볼 수 있다.
9. 白衣와 같이 내면적, 정신적인 면에 근거한 복식 특징은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0. 이 시대 복식 변천의 외형

적 특징은 실용화, 간편화, 그리고 신분상징성 감소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 ABSTRACT

Clothing as one of elements of culture has been interwoven with cultural diffusion, and accompanied the most visible change.

In this paper, it was focused that the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estern clothing adoption of Korea from 1876 to 1945 correlating with cultural diffusion theory. They were analyzed through the change of clothing reformation system by government, school uniform, and social phenomenon.

The findings of this paper were as followings ;

1. The process of western clothing adoption was forcibly demanded by Japan, therefore influenced by Japan. 2. The clothing reformation which was forced to accept western style was confronted by complex of cultur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resistance. 3. The fashion leaders of this period were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diplomatic officials, members of the armed forces, government officials, students of western educational system school, and lady of evangelist. 4. Man adopted western clothing earlier than woman. 5. Western clothing adoption was took precedence in case of formal wear, diplomatic official's attire, military uniform, and school uniform. 6. In this process, we can find 'transculturation' by Malinowski and 'reinterpretation' by Herskovits. 7. This process was a kind of 'reorientation'. 8. The change of clothing which was affected by the tradition, for example, robe for the ancestral rites was evolutionary than others. 9. Clothing elements based on mental or internal characteristics like white clothing was hardly changed by compulsion or extortion. 10. The external trends of clothing change during this period were simplicity, utility, and decrease of status symbols.